

|                                                                                                                                                                 |              |                       |                                |            |
|-----------------------------------------------------------------------------------------------------------------------------------------------------------------|--------------|-----------------------|--------------------------------|------------|
|  <div><div>천주교 서울대교구</div><div>구로3동 성당</div><div>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div></div> | 미사<br>안<br>내 | 주<br>일                | 토요일 주일 : 16:00 (초등부 대성전) 19:00 |            |
|                                                                                                                                                                 |              |                       | 06:30 (새벽) 10:30 (교 중)         |            |
|                                                                                                                                                                 |              |                       | 10:3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 낮 )  |            |
|                                                                                                                                                                 |              |                       | 19:00 (청 년) 21:00 (찬양미사)       |            |
|                                                                                                                                                                 |              | 평일                    | 새벽 6:30 / 저녁 7시                | (목) 오전 10시 |
| 예비자교리                                                                                                                                                           |              | 일요일 낮 12시 / 화요일 저녁 8시 |                                |            |
| 유아 세례                                                                                                                                                           |              | 사무실 문의                |                                |            |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홈페이지 [www.guro3cc.com](http://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3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꿀벌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2020년 본당 사목 목표 : 1. (세례 받고 파견된 이들)“선교사가 됩시다.” 2.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 ● 교리 상식

- 미사 시간을 잘 지킵시다(복음 봉독 이후에 입장시 영성체를 영할 수 없습니다.)

### ● 알 림

- 오늘은 예루살렘 성지 복구를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 9월16일(수) 저녁 7시 미사는 본당 임원들을 위한 미사로 진행합니다.(예정)
- 다음 주일(9/20)은 서울대교구 내 성지개발을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 유아 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 봉성체 신청 받습니다.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개별 예식)
- 고해소 사용  
- 고해소에 환기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 손소독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능한 짧게 본인의 고해만 합니다.
- 무인 단말기(키오스크) 사용 안내  
- 성당 입구에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하였습니다.  
- 바코드를 무인 단말기에 접촉(터치)하여 본인 스스로 출입을 기록합니다.  
- 바코드가 없는 본당 신자는 사무실에서 발급 받습니다.
- 미사 참례시 주의사항  
- 성당 정문을 이용합니다.  
- 마스크를 코와 턱이 덮이도록 똑바로 착용합니다.  
- 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받은 후, 키오스크에 바코드로 출입을 기록합니다.  
- 바코드가 없는 타본당 신자는 수기로 기록합니다.  
- 손 소독을 하고 입장합니다.  
- “X”라고 써있는 곳은 앉지 않습니다.  
- 개인이 사용한 주보는 가져갑니다.

#### \* 성당출입 발열검사 봉사자 모집 \*

- 시 간 : 평일 미사(월요일 ~ 토요일 새벽미사)
- 하실일 : 성전 입구에서 평일 미사에 참석하시는 신자들의 발열검사와 출입기록 도와주기
- 대 상 : 65세 미만의 봉사활동에 지장이 없으신 분
- \* 사무실에 접수합니다.

### ● 추석 합동 위령미사 안내 : 10/01(목)

| 추석미사                                                                                                 | 06:30, 12:00<br>(저녁7시 미사 없음) | 합동 분향 |
|------------------------------------------------------------------------------------------------------|------------------------------|-------|
| - 한가위 합동위령미사 예물은 당일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9/13(오늘)부터 미리 봉헌함에 넣으시거나 사무실에 접수합니다.<br>- 코로나19로 인해 친교의 음식 나눔은 없습니다. |                              |       |

### ● 지역별 주일 미사 참례 시간

| 구 분    | 새벽미사<br>6:30 | 교중미사<br>10:30 | 주일 낮<br>12:00 | 주일저녁<br>19:00 |
|--------|--------------|---------------|---------------|---------------|
| 9월13일  | 1지역          | 2지역           | 3지역           | 4지역           |
| 9월20일  | 4지역          | 1지역           | 2지역           | 3지역           |
| 9월27일  | 3지역          | 4지역           | 1지역           | 2지역           |
| 10월04일 | 2지역          | 3지역           | 4지역           | 1지역           |

- 구역 외 신자분들은 12시, 저녁 7시 미사에 참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후 알림 전까지 주일 밤 9시 미사는 없습니다.
- 서울 대교구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다음주일 (9/20)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 국수잔치 | 쉽니다. | 청 소 | 16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9월02일 ~ 9월08일)

|                                                   |             |
|---------------------------------------------------|-------------|
| • 교 무 금                                           | 7,095,000 원 |
| • 주일헌금                                            | 3,878,000 원 |
| • 헌미헌금 2차헌금                                       | 585,000 원   |
| • 감사헌금 이성근30만원 엄기자10만원 김수자10만원<br>이정례 5만원 신종구 5만원 |             |

###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 월일   | 해 설 | 복 사             | 독 서     |
|------|-----|-----------------|---------|
| 9/13 | 최경희 | 조홍환 서윤석 도현만 최상림 | 장익근 한희숙 |
| 9/20 | 이영민 | 최영만 임공섭 김진수 엄태환 | 안상록 박혜선 |

### ● 성체 분배자 명단

| 월일   | 토요일 | 06:30 | 10시 30분     | 12시     | 저녁7시 | 밤9시 |
|------|-----|-------|-------------|---------|------|-----|
| 9/13 | 오광운 | 박용환   | 박형순 손상민 오광운 | 최상남 최승일 | 없음   |     |
| 9/20 | 최창열 | 장인홍   | 이성일 이계명 장인홍 | 이성일 최석준 | 없음   |     |

### ● 주보 7면

-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행동하는 교리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행동하는 교리

### 322. 그리스도인들은 공개적인 시위에 가담해야 하나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길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더 자주 나가야 하며, 자신들의 이해가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도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권력이 정의를 억압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시위자들의 맨 앞에 있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길거리로 나가십시오 …… 저는 다른 사람들이 변화의 주역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미래는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2013년 리우데자네이루 세계 청년 대회) 그리스도인들은 증오와 폭력이 난무할 때, 노동조건이 비인간적일 때 정당한 보수의 지불이 유보될 때, 자연적인 삶의 토대가 파괴될 때나 소수가 억압을 받을 때 항의해야 합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은 선량한 시민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시위를 정치 집단보다 적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인 의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삶을 보호받기 위해서도 길거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박해받는 종교이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를 입고 억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권리 보호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모욕에 반대하여 항거해야 합니다.

### 323. 그리스도교 청년들의 국가적·국제적인 만남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성지 순례, 청년 캠프, 기도 모임 그리고 세계 청년 대회 등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젊은 가톨릭 청년들을 함께 결함시킵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많은 국가에서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문화를 강력하게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또 어떤 국가에서는 이러한 행사가 신앙생활에서 고립되었다고 느끼는 가톨릭 청년들에게 열광과 위로를 주는 체험이 됩니다. 특히 세계 청년 대회는 ‘가톨릭 정서’, 곧 사도들의 시대 이후부터 지상의 모든 민족 안에서 성장한 하느님의 새 백성에 속한다는 자부심을 키워주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젊은 가톨릭 신자들이 세계 청년 대회나 정기적인 기도 모임이 삶의 근본적인 결정을 위한 기폭제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때부터 자신의 삶은 오직 하느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계 청년 대회에 참가했던 모든 사람이 참여와 동시에 독실한 가톨릭 신자가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신앙심이 있거나 또 지금 신앙을 찾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미사와 성찬례를 통해 서로 더욱 돈독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삶의 시작입니다.

### 324. 가톨릭 신자들은 공공연하게 교회를 비판할 수 있나요?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 교회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교회를 도우려는 비판은 정당합니다. 시에나의 가타리나 성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 베르나르도 성인, 베네딕토 16세 교황과 프란치스코 교황 등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교회에 깊이 일치시킬수록, 예수님을 더 무조건적으로 따르고, 교회와 그 직무자들에게 더 예리하게 복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사제들과 주교들을 비판하는 사람은 그들이 예수님의 특별한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다.” (루카 10,16 참조) 동시에 그들에게는 “불행하여라, 내 목장의 양 떼를 파멸시키고 흩어 버린 목자들!” (예레 23,1) 이라는 말씀도 중요합니다. 가톨릭 신자로서 교회의 기본 입장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개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토론할 수 있습니다. 건설적인 논쟁은 내용적으로 근거가 있고, 가톨릭 가르침의 근본 가치와 원리와 일치한다면 크게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부터 자신들의 실제적인 이해와 입장을 표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는 활기차게 됩니다.

### 325. 교회에서의 이탈은 언제 일어나나요?

교회의 공동체나 기구가 구체적인 문제에서 다르게 행동하거나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 교회와의 일치에서 떠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러한 이탈은 예언적 행동을 앞당겨야 한다는 필요성에 근거를 둡니다. 예를 들면, 사회의 부당한 정권에 대항하여 무기를 사용하는 것, 교회의 계율에 반대하여 저항하는 것, 갈라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허락되지 않은 성찬례를 거행하는 것 등입니다. 실제로 교회에는 새로운 것이 교회 안에서 실현되도록 돕는 예언자들이 필요합니다. 예언자가 없었다면 교회는 노동자 문제를 놓쳤을 것이고, 표현의 자유가 교회 안에서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언자적 용기’로 교회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완고함과 모든 것을 안다는 식의 태도에서 기인하여 불순종으로 분열을 일으키는지 늘 명확하게 검증해야 합니다.